

## 에이치시티, 2020년 매출액 534억 원, 영업이익 104억 원! “사상 최대”

▶ 전년비 매출액 12.6%, 영업이익 44.8% ↑ “5G 인프라 장비에 이어 단말기 시장 확대”

▶ 무선통신을 넘어 전기차 배터리 등 시험인증 사업 다변화해 퀀텀점프할 것

<2021-02-05> 에이치시티가 2020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시험인증·교정산업 선도기업 에이치시티(072990, 대표이사 이수찬)는 2020년 연결 기준 경영실적이 매출액 534억 원, 영업이익 104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5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공시는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 15%) 이상 변경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와 비교 시 매출액은 12.6%, 영업이익은 44.8% 증가했다. 이로써 에이치시티는 처음으로 매출액 300억 원을 돌파한 2018년부터 3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주력 분야인 5G 무선통신 부문을 필두로 전장부품 및 중소형 배터리 부문의 시험인증 사업이 약진하며 호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선통신의 경우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 기업들이 5G 제품을 본격 출시해 부가가치가 높은 5G 시험인증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된다.

회사 관계자는 “5G가 대중화되면서 시험인증 대상이 5G 중계기, 기지국 등 인프라 장비에서 소비자 직접 사용하는 단말기로 확대됐다”며 “전방시장의 팽창은 물론, 이를 소화할 수 있는 기술력과 CAPA(생산능력)의 선제적 확보를 통해 성장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덧붙였다.

2021년엔 사업 저변의 확대와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모두 기대된다. 대중화된 5G 주파수 대역은 3.5GHz로, B2B용 대역인 28GHz의 상용화를 정부가 직접 주도하고 있다. 또 회사는 고속성장하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겨냥해 중대형 배터리 시험인증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현재 중대형 배터리 전용 방폭시험장을 신축 중으로 연내 가동을 개시할 방침이다.

이수찬 에이치시티 대표이사는 “무선통신 세대가 거듭될수록 시험 대상 제품과 제품당 시험항목이 함께 늘어나 당사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가장 강력한 경쟁력인 무선통신 부문 기술력을 고도화하는 것은 물론, 국내 우수기관과 협업 및 신규 사업 진출에 박차를 가해 퀀텀점프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